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복음으로 여는 예레미야-
예레미야 33:1-3, 누가복음 22:44

정윤돈 목사님

*** 렬33:1-3**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하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 눅22:44** 예수께서 헌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땀방울 같이 되더라

“준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인 채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다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자옥에 갈 수밖에 있었는데, 은혜와 공훈과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므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 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 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간대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힘을 얻게 하시며 또한 영육 간의 절대불가능한 부분까지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모든 응답과 축복을 뛰어넘어서 내가 정말로 이 복음을 위하여,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내가 있는 현장과 가정, 기도와 특별히 우리 후대를 위하여 올인하며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서 지난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아픔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오직 모든 예배와 성령의 역사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계획과 또 이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절대미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수많은 말씀 중에서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내가 도전하고 성취해야 할 레마의 말씀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론 : 기도의 절대적 가치와 영적인 원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이다. 예레미야서를 중심으로 우리가 위기의 때에 붙잡아야 할 기도의 비밀과 그 놀라운 응답에 대해 나누고자 한다. 어떤 시 절의 깨달음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니를 따라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기도를 한 적이 있다. 당시 기도원에 이불을 펴놓고 물통 하나 들고 열자리에 앉 아 있는데, 어머니만 금식하시는 줄 알았더니 나도 하루 이틀 같이 금식을 하게 되었 으다. 그때 열자리에 한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어려이기가 며칠째 금식기도원을 하는 것 을 보고는 전해져서 나에게 물으셨다. “야, 너처럼 어린애가 무슨 큰 문제가 있어서 여 기까지 와서 금식기도까지 하니?” 그때 하나님께서 어린 나에게 주신 깨달음이 있었다. ‘ 저 아주머니가 나처럼 초등학교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더라면, 지금 겪고 있는 저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었다. 아주머니가 옆에서 저 어머니와 대화하며 나누는 기도제목들 들어보니 인생의 온갖 풍파와 고��이 가 득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그 모든 것이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면 충분히 넘기실 수 있는 일들이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갯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땀방울 같이 되더라”고 하셨다. 만약 우리가 평 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인생의 어느 시점에 가 서 정말 감당하기 힘든 파도들을 흘려야 할 때가 올 수도 있다. 반대로 지금부터 정말 로 기도의 비밀을 누리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너무나 커서 천국에 가기 싫을 정도로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많은 성도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왜 저 에게 이런 일이 생기니까?”라고 원망한다. 나는 그들에게 직접 말은 못 하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기도 좀 하세요, 왜 기도를 안 하고 원망만 하시는가”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리는 법이 있고 축 복이 있다. 그것을 기도로 찾아 누리야 한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축복의 90% 이상 은 여러분 자신의 노력보다는 부모님과 조상들의 기도 덕분인 경우가 많다. 반대로 지 금 겪는 고�� 역시 조상의 영적 대물림에서 온 것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주를 끊고 복을 물려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나의 아버님은 당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다. 이복에서 내려와 사업을 하셨 는데, 정직하고 성실하시어서 하는 일마다 절되었다. 그런데 유독 외삼촌(어머니의 남동 생)과의 갈등이 심했다. 아버님이 열심히 사업을 일궈놓으면 삼촌이 와서 자꾸 빼앗아 가려 하고 뺨칠거라며 악을 울렸다. 아버님은 이복 분이라 등지고 그 고 성정이 ‘욱’하 셴는데, 삼촌이 너무 알뜰계 구니까 하루는 참지 못하고 삼촌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 치셨다. 삼촌은 그것을 빌미로 아버님을 폭력배로 몰아붙이며 곤란하게 만들었다. 그때 어머니께서 아버님을 데리고 기도원에 가셨다. 아버님은 기도원에서 화장지가 다 없어질 정도로 눈물 콧물 흘리며 일주일 넘게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때 아버님이 꿈을 꾸셨는데, 흙이었는데 이 원수를 갈으려고 갈을 땅에 들고 등을 치려 할 때 뒤에서 거대한 도끼가 날아와 그 흙암 등을 쪼개 가르느 장면을 보셨다. 하나님께서 “원수 같 는 것은 내게 말고고 너는 참고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신 것이다. 그 응답을 받은 후 아버님은 완전히 변화되었고, 이후 장로님이 되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버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업을 다시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일본과 한국에 수많은 사회복지시설과 의료원을 세우는 큰 응답을 주셨다. 최근 내 남동생이 150만 사회복지사를 대표하는 회장이 된 것도 아버님의 그 눈물 어린 기도장 성취된 결과라고 믿는다. “너는 부르짖 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란다. 우리에게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 문이다.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기도가 있으면 응답 다 해 주신다. 최근 우리 교회의 한 후대가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 었다. 이 친구는 33수험생 기간에도 수요일에, 금요일에 등 모든 공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재는 공부 안 하고 왜 자꾸 교회에 오나’싶을 정도로 예배에 올인했 다. 수학문제도 난 하나만 틀렸다고 하더라. 지금은 홍콩에서 선교후원을 받고 있는데, 호텔 조식까지 포기하고 새벽기도에 나간다는 소식을 들으니 정말 대단하다. 호텔 조 식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포기하고 기도를 선택한 것이다. 이처럼 위기 앞에서 세상 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다.

들어가는 말씀 : 위기 속의 무기, 부르짖는 기도

(1) 예레미야의 소명과 하나님의 예비하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나가 회개하라고 선포하라는 소명을 주신 것이다. 그때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울며 대담했다. “주님, 저는 나이가 너무 어리고 경험도 없습니다. 제가 이 막중한 일 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라며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 레미야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을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 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 지자로 세웠노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단순히 예레미야 한 개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세 전부터, 여러분이 어머니 태중 에 생기기도 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으며,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 고난과 문제 : 응답을 위한 최고의 기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엄청난 무기가 있다. 그것은 바로 전능 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다. 나는 성도들이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오히 러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를 권한다. 기도를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그토록 심 각하게 느껴지던 어려움이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닌 것으로 바뀌게 된다. 조금만 집중합 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생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부여 주신다. 더 깊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계획이 세밀하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마치 등 뒤 에서 하얀 시원한 바람이 싹 들어오는 것 같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 그런 평 안함이 임하면 더 이상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다. 사실 우리에게 고민 과 염려, 걱정거리가 찾아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신호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 것 을 단순히 근심거리로 두지 말고, 그 고민 앞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여 기도로 바 꾸어야 한다.”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화가 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정말 밉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고 염려됩니다. 주님 뜻대로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 렇게 하나님과 붙잡으면 모든 것이 기도가 되고, 그 문제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3) 기도의 공동체와 응답의 원리 우리가 기도의 응답에 대해 이기적인 마음을 버려 야 한다. “꼭 내가 응답을 받아야 하는가? 꼭 내 자식이 잘되어야만 하는가?”라고 질 문해 보라. 우리 참사랑교회 성도들은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요 사랑의 공동체이다. 비록 지금 당장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의 다른 후대가 잘되고, 내가 응답받 지 못하더라도 우리 교회의 다른 성도가 응답을 받는다면, 그것이 곧 나의 축복이자 우리 전체의 응답인 것이다. 대한민국과 이 민족이 복을 받으면 그것이 결국 우리 모 두의 축복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의 기 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성도들과 후대들을 통해 반드시 성취된다. 응답 은 꼭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나타나야 하는 것도 아니다. 예레미야를 보라. 그는 40 년 동안 눈물로 사역하며 수많은 약수를 받았지만, 육신적으로는 온갖 고생만 하다가 생을 마감했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훗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거대한 역사의 씨앗이 되었다.

(4) 21세기 대한민국과 크고 은밀한 응답 우리는 지금 기도의 무기를 사용해야 한 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특 히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성도들에게는 응답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 조금만 집중해서 기도하면 우리 주변에 내려 오는 수많은 응답의 증거들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기도의 맛을 보아야 신앙생활이 행복해지고 예수님 믿는 것이 즐거워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약속하셨다. 진짜 큰 응답을 받으려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자랑하지가 조심스러워진다. 남들이 이해할 수도 있 고 시기가 질투를 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나 사 랑하셔서 그 은밀한 축복을 예비해 두셨다. 성도는 영적인 자부심과 자존심을 가려야 한다. “하나님, 나는 세상을 너무 가장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참사랑교회 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민족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가장 아끼신다 ”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교만이 아니라 영적인 사실이다. 이 은밀한 비밀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을 부여 주신다. 이 모든 축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한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 님께서는 땀방울이 땀방울이 될 정도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 간절 한 부르짖음이 모든 저주를 꺾고 승리하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

1. 예레미야의 시대적 배경과 영적 정세의 중요성

(1)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활동 시기와 시대적 배경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에 대해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는 유다 왕국의 제16대 왕인 요시아 왕 13년부터 사역을 시작 하였다. 이후 제20대 왕인 시드기야 왕까지 약 40년 동안 예언활동을 지속하였다. 당 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매우 위태로웠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100년 전에 앗수르에 의 해 멸망한 상태였고, 남유다 왕국 역시 바벨론에 의해 종전상태의 위기에 처해 멸망을 앞둔 시점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이다. 예레미야 1장 3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의 활동은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시대부터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이어졌다. 즉,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을 감당하였다.

(2) 영적 정세를 분별하지 못한 요시아 왕의 실책 예레미야가 부르짖음을 받을 당시 유대에는 요시아라는 경건한 왕이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잊혀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발견하여 회복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선한 왕이었다. 그러나 요시아 왕은 신앙심이 깊었으나 세상의 흐름과 정세를 읽는 눈이 부족하였다. 당시 애굽의 그고 왕 이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 복전하고 있었다. 애굽 왕은 요시아에게 힘을 비켜달라고 요 청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요시아 왕은 이를 거부하고 전쟁 을 일으켰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요시 아 왕은 결국 이 전쟁에서 전사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다. 오늘 날 우리나라도 중국, 미국 간의 관계 갈등이나 러시아전쟁 등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 놓여 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나는 믿음이 좋으니 괜찮다”라고만 생각 하며 무조건 대항하는 것은 위험하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되,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정세를 읽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

(3) 지혜와 기도의 부재가 불러온 치참한 결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실 수 중 하나가 바로 ‘의율수신’인 신앙생활이다. 가정, 가문, 직장에서 세상의 흐름을 무시한 채 종교적인 강요만 앞세우면 결국 전도의 문을 막게 된다. 우리는 현장에서 빛을 발하며 꼭 필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내가 복음을 누리고 감시하며 기도 속 에서 응답을 받아야지, 무조건적인 종교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요시아 왕 이후 유다의 주권은 급격히 흔들렸다. 애굽과 바벨론이 번갈아 가며 유다의 왕을 세우는 치욕적인 역사가 반복되었다. 여호야히스, 여호야김, 여호야킨을 거쳐 마지막 왕인 시드 기야에 이르렀을 때, 그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대항하는 우를 범하였다. 만약 그가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정세를 살펴봐 기도했다면, 바벨론의 통치 하에서도 나라는 어 느 정도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고, 결국 치참한 결말을 맞이하였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 자기 눈앞에서 자식들이 죽는 것을 보아야 했고, 본인 또한 고문을 당한 뒤 두 눈이 뽑힌 채 암송되어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을 겪었다.

(4) 성경 역사를 통한 오늘의 적용 정치인들을 포함하여 장차 이 사회의 주인이 될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 역사를 반드시 배워야 한다. 성경 안에는 국가 경영과 의 교, 인생의 모든 지혜가 다 들어 있다. 여러분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내용을 깊이 묵상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고민하고, 그것이 체질화되어 있어야 한다. 영적인 정세를 분별하고 기도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양의 응답의 문을 여실 것이다.

2.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이유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로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말하겠다.

(1)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소명에 대한 부담감 예레미야가 처음 소명을 받았을 때 그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말주변도 없었다. 그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라며 울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모라에 짓기 전에 알았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시며 용기를 주셨다. 하나님은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하라"고 하셨다. 우리는 내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기에 기도하며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많은 성도가 실제로 전혀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본다. 어떤 관례를 내리거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기도가 앞서지 않으면, 결국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서 자신의 체질, 생각, 고집, 그리고 아집에 사로잡히게 된다. 특히 가문을 통해 몇 대째 내려오는 자신의 영적인 문제와 못된 성질로 인생의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선 결코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내면의 '쓴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려야 한다. 자신의 추하고 더러운 성격이나 병든 영적 상태를 바탕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한다. 성도는 날마다 24시간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기야 한다. 인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읊조리며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자책'과 같다. 기도는 영적인 통장에 계속해서 저축하는 것이며, 이는 단순히 영적인 세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된다. 참된 기도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중에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기도는 단순히 개인의 평안을 넘어 가정과 가문의 모든 문제에 실질적인 응답을 가져다준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축복을 주어야 한다. 예레미야 1장 8절에서 하나님은 "너는 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성도는 간단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매 순간 확인해야 한다. 주변에 아무런 큰 문제가 산재해 있을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아무런 걱정과 염려가 사라진다. 모든 응답의 시작은 나의 개인적인 선택과 인본주의를 버리는 데 있다. 기도가 없는 인본주의적 선택은 결국 불행과 두려움을 불러오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내리는 결정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 능력이 되기를 축원한다.

(2) 예레미야의 섭섭함과 하나님의 절대선

① 약속과 현실 사이의 괴리와 갈등과 섭섭함 사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지만, 정작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해놓으시고 정작 일은 온갖 힘든 것만 시키시나"고 토로하였다. 그는 감옥에 갇히고, 때를 맞으며, 물이 있는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였다. 그를 둘러싼 왕들은 하나같이 악하였고, 40년의 시역기간 동안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약속하셨지만에도 현실은 이토록 참혹하니 예레미야는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을 수 없는 슬픔을 느낀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하여 섭섭함과 원망이 생겼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4장 10절을 보면 그는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라고 부르짖었다. 단순히 속인 것이 아니라 '크게 속였다'고 표현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고 평강을 주겠다고 좋은 약속은 다 하셨는데, 현실에서는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망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앗수르, 바벨론, 애굽에 의해 나라가 짓밟히고 백성들이 처참하게 살육당하며 노예로 끌려가는 상황에 직면하니, 예레미야의 고통은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② 고난을 통해 성취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도 예레미야가 겪은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우리는 작은 믿음이 부족하여 당장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지만, 역사를 거시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였다. 우리 민족의 역사만 보더라도 그렇다.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이라는 참혹한 시련이 없었다면, 한국에 이토록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과 믿음이 중만해지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나라를 빼앗긴 슬픔 속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울며 매달려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수출 강국이자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 주셨다. 최근 AI 분야에서 세계적인 강국으로 도약하고 방산시장에서 수많은 무기를 수출하게 된 배경에는, 남북 대치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준비하고 기도하게 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들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야 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 이 믿음을 축원드린다. 우리 교단, 우리 교회, 개인적인 가정 가문, 자녀 문제가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실 줄 믿는다. 할렐루야.

③ 위기의 시대에 '남은 자가 누리는 응답 (청년수련회 회화) 최근 우리 교회에서 청년수련회를 진행하였다. 원래 예상보다 훨씬 많은 청년이 모여 성황을 이루었다. 다들 큰 교회들조차 여러 어려움으로 위축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넘치는 응답을 주셨다. 얼마나 많은 청년이 왔는지 식사를 준비한 여전도회에서 반찬이 부족할 정도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모인 청년들의 중심이다. 모인 청년들 중 절반 이상이 주일학교나 종교동부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50명, 100명 미만의 작은 교회에서 온 아이들이다. 그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혼자 봉사하고 성탄절 행사를 준비하며, 때로는 마음에 차지 않는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자신이 이 교회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는 '남은 자'들이었다. 참사랑교회 성도들은 지금 누리는 환경에 대해 불평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큰 죄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넘어 전체 교회와 세계 교회, 그리고 이 시대의 청년들을 살리는 모델이 되어야 한다. 예레미야가 눈물로 교회를 지키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고 기도의 눈물을 흘려야 한다. 현재의 어려움을 고난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가정과 직장, 그리고 각자의 분야를 살리는 '남은 자'이자 '복의 근원'으로 사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어려움을 통해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이다.

(3)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던 예루살렘의 실상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며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단 한 명이라도 찾으면 그 성읍을 용서하시겠다고 하셨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지만, 예루살렘은 단 한 명의 의인만 있어도 멸망을 면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었다. 당시 유다는 겉으로는 종교적인 형식이 있었으나 속은 불신앙과 우상숭배로 가득했다. 예레미야 자신도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흔들렸기에 완벽한 의인은 아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도 없었기에 연약한 예레미야를 불러 그 한 사람으로 세우신 것이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그 한 사람, 그 의인임을 잊지 마라.

(4)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의 거짓 평화메시지 예레미야는 진실한 회개와 바벨론 항복을 통한 생존을 외쳤지만,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무당들은 "바벨론을 삼기지 않을 것이다. 절대 안 망한다. 평안하다"고 백성들을 속였다. 백성들은 듣기 좋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예레미야의 참된 경고를 무시하고 그를 핍박했다. 임진왜란 전에도 "전쟁 안 일어나다"는 말만 믿다가 처참하게 당하지 않았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세상 정세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다 같이 망하게 된다. 우리는 긍정적인 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5) 민족 전체의 영적 타락상태 이스라엘 민족은 재앙을 피할 수 없을 만큼 깊이 타락해 있었다.

① 사회의 총체적 거짓 : 이스라엘은 사회 전반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재앙을 피할 수 없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직이 사라진 시대를 매우 싫어하셨다. 특히 위정자들이 악의와 가난한 자를 거짓으로 대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시대를 심판하셨다. 그러므로 복음을 가진 우리 후대들이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며, 이 부패한 현상을 회복시키는 주역이 되어야 한다.

②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 :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이 심각했다. 예레미야 23장 15절 말씀처럼 사악이 선지자들로부터 나와 온 땅에 퍼졌다. 그러나 우리는 타락한 지도자들을 보며 비판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남은 자인 여러분이 "내가 진짜 올바른 정치인, 경제인, 중직자가 되어 이 나라와 교회를 살리겠다"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남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의인 한 사람이 되면 된다. 그것이 복의 근원이 누리는 참된 축복이다.

③ 하나님을 버린 백성 :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오죽하면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고 탄식하셨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뺨칠거리는 전도대상자를 보면 전도자가 지치듯, 하나님도 당시의 백성에게 지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살면서도 믿음이 켈게만 닦아 하나님과 전도자를 지지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살리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한다.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3. 이러한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과 언어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회복의 길을 완벽하게 준비해 두셨다.

(1) 징벌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첫 번째 방법은 유대인들에게 징벌을 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신다.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신호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 신호를 그냥 무시해 넘겨버려서는 안 된다.

(2) 남은 자(Remnant)를 통한 새로운 역사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와 성전을 회복하도록 하신다. 시대마다 하나님께 예레미야처럼 선지자로, 혹은 남은 자로 부르시던 그 삶은 사실 고단하고 힘들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역사를 바꾸신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포인트의 인물로 쓰임 받아야 한다. ① 남은 자 : 어떤 환경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아 복음을 지키는 자. ② 순례자 : 전체를 돌아보며 현장을 살리는 자이다. ③ 장복자 : 흑암연설을 겪고 승리하는 주역이다. ④ 홀어린 자(디아스포라) : 전 세계로 흩어져 현지에서 주역이 되는 자이다. ⑤ 파수꾼 : 곳곳에서 현장과 가정, 가문을 살리고 지키는 자이다. ⑥ 정감꾼 : 현장의 정보를 정확히 읽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자이다. ⑦ 기를 든 자(대모) :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들고 대로를 수축하는 자이다. 여기에 '정감꾼'에 대한 해화 하나를 들겠다. 내가 해군 복무시절, 독일에서 들어온 고속정 엔진이 고장 난 적이 있다. 독일 기술자가 엔진을 고치러 왔는데, 우리에게 기술을 안 알려주려고 문을 딱 닫아놓고 자기들끼리만 고치고 가버리는 것이다. 우리 기술 상사님이 너무 분해서 문들 위로 보고 몰래 공부해서 결국 우리가 엔진을 직접 만들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현장에서 보고 배워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 정감꾼의 자세다. 여러분도 세상 학문과 기술을 배워서 복음을 위해 더 잘 활용하는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3) 언약을 붙잡고 부르짖는 기도 세 번째 회복의 방법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문이 열리고 삶이 행동하게 된다. 영적인 원리로 마친 것이다. 한 가지 악한 것에 붙잡혀서 사기와 중독 등 모든 저주가 따라오지만, 반대로 한 가지 거룩한 것에 집중하면 모든 축복이 따라온다. 예배에 성공하고 성가대나 봉사 등 많은 직분을 잘 감당하며 기도와 전도에 집중하면 나머지 모든 응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다. 가장 큰 축복은 24시간 시간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중얼거리며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야 한다. 어린 시절, 어머니는 아침에 내가 학교 가기 전 항상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다. 그런데 내 기도만 하시면 되는데 온 가족과 친척,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위해 헌명을 기도하셨다. 나중에는 너무 오래 기도하시기에 기분이 나빠서 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쉽 없는 기도가 오늘 날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었다. 시간 날 때마다 중얼거리며 기도하라. 그것만이 여러분에게 남은 진짜 자산이 될 것이다.

(4) 다윗의 가지, 곧 그리스도 네 번째 회복의 방법은 '다윗의 가지'로 오신 그리스도이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 예레미야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수많은 예언적 표현들이 담겨 있다. 목자(렘23:4), 생명의 근원(렘2:13), 치료자(렘8:22), 통치자(렘23:1-6), 새 언약을 세운 그리스도(렘31:31-34), 평안과 소망의 그리스도(렘29:11), 사랑의 그리스도(렘31:3), 구속자(렘50:34), 다윗 같은 왕(렘30:9). 이처럼 최고의 응답은 오직 그리스도뿐임을 믿으시기 바란다. 아멘.

결론

현재 대한민국과 전 세계는 예레미야 시대 못지않은 위기에 처해 있다. 북한의 핵 위협, 정치적 혼란, 미국의 관세 및 경제 정책 변화, 저출생과 고령화, 마약과 도박 중독, 자살 문제, 동성애와 같은 창조 질서의 파괴, 그리고 교회가 문을 닫고 복음이 회미해지는 영적 기근의 시대이다. 우리는 이제 예레미야처럼 울어야 한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시대와 후대를 위해 한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한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구체적인 기도제목은 다음과 같다.

(1) 전쟁을 막아 주옵소서 : 이 땅에 핵전쟁과 같은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옵소서. 한반도의 전쟁 위험이 사라지고 평화에 임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 오직 복음, 오직 예수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물질주의와 인본주의에서 벗어나 다스림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2) 교회의 사회적 역할 :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회복되어 사회와 국가에 바른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3) 랍넛트의 부상 : 위기의 시대를 살릴 다니엘, 에스더 같은 랍넛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영적 서민으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4) 재앙을 막는 파수꾼 : 성도들의 현장에서 흑암의 세력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재앙을 막고 참된 축복을 누리는 참 믿음의 세대로 세워 주옵소서.

여러분이 오늘 예레미야가 보았던 그 한 명의 의인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응답을 매일 체험하는 복된 남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위기의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오늘 언약으로 붙잡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진실로 기도하는 믿음의 제자가 되어 가정과 가문, 직장과 산업, 지역 사회와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